

현대일본의 대련(大連) 표상*

- 방법적 존재로서의 식민도시 -

이 수 열**

sosoyo78@hanmail.net

〈目次〉

- | | |
|--------------------|------------------------|
| 1. 서론 - 두 가지 대련 표상 | 4. 다민족사회 대련 |
| 2. 근대도시 대련 | 5. 결론 - 방법적 존재로서의 식민도시 |
| 3. 식민도시 대련 | |

Key word : 대련(Dalian), 식민도시(colonial city), 기요오카 다카유키(Kiyooka Takayuki),
센다 가코(Senda Kako), 이시자와 이에타로(Ishizawa Eitaro)

1. 서론 - 두 가지 대련 표상

대련 출신 식민2세 작가 기요오카 다카유키(清岡卓行)가 1969년에 발표한 작품 『アカシヤの大連』은 다음과 같은 문장으로 시작하고 있다.

일찍이 일본의 식민지 가운데 아마 가장 아름다운 도시였음에 틀림없는 대련을 다시 한 번 보고 싶은가 라고 묻는다면 그는 오랫동안 주저한 끝에 고개를 가로로 저을 것이다. 보고 싶지 않은 것이 아니다. 보는 것이 불안한 것이다. 만약 다시금 그 그리운 거리에 서게 되면 그저 허둥덜 뿐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것은 아닐까 하고 남몰래 자신을 두려워하는 것이다.)

* 이 논문은 2008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08-361-B00001)

** 한국해양대학교 국제해양문제연구소 HK교수

문학평론가 가와무라 미나토(川村湊)는 기요오카의 이 같은 감상을 인용하며 『アカシヤの大連』은 “대련”이라는 마을을 마치 한 명의 여성처럼 사랑한 일종의 ‘연애소설’²⁾이라고 평한 바 있다. 가와무라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기요오카에게 대련은 “현실의 세계라기보다 관념 속에 있는 고향”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결국 “허구와 추억”³⁾ 속에서만 존재한다는 사실을 지적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비현실적이고 관념적이라 할지라도 대련에서 태어나 대련에서 인격을 형성한 기요오카에게 대련은 아름다운 자연과 국제적인 분위기가 존재하는 곳이었다. 대련에는 “근대적 시민생활의 꿈을 상징하는”⁴⁾ 야구라는 스포츠가 있었고⁵⁾, 도시의 국제성을 상징하는 아카시아나무가 심겨져 있었다. 기요오카는 비록 타인의 땅이지만 그러한 ‘고향’ 대련을 평생토록 사랑한 인물이었다.⁶⁾

기요오카가 근대적 국제도시 대련을 그리워했다면 같은 대련 출신 작가 센다 가코(千田夏光)는 식민도시로서의 대련에 집착한 인물이었다. 센다는 아카시아 꽃이 필 무렵의 대련의 아름다움을 회고하면서도 그것이 “일본인 주택가나 일본인 학교 근처뿐이었다”⁷⁾는 사실을 강조하며 다음과 같은 자신의 체험을 고백하고 있다.

-
- 1) 여기서는 講談社文芸文庫판에서 인용. 清岡卓行(1988) 『アカシヤの大連』 講談社文芸文庫 p.71
 - 2) 川村湊(1990) 『異郷の昭和文学「満州」と近代日本』 岩波新書 p.80
 - 3) 川村湊(1990) 『異郷の昭和文学「満州」と近代日本』 岩波新書 p.91
 - 4) 清岡卓行(2007) 『偶然のめぐみ』 日本経済新聞出版社 p.24
 - 5) 야구소년이었던 기요오카는 후일 일본야구연맹에 취직하여 센트럴리그의 일정편성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 6) 기요오카는 1922년 대련에서 출생하여 1929년 아사히(朝日)소학교, 1935년 대련제1중학교, 1940년 여순(旅順)고등학교에 차례로 입학했다. 그는 『アカシヤの大連』을 발표한 후, 대련에 대한 글쓰기가 마치 “피할 수 없는 나의 운명”이라도 되듯 대련 관련 작품을 지속적으로 발표했다. 清岡卓行(1971) 『フルートとオーボエ』 講談社, 清岡卓行(1972) 『鯨もいる秋の空』 講談社, 清岡卓行(1983) 『大連小景集』 講談社, 清岡卓行(1987) 『大連港で』 福武書店 등이 그것들이다. 한편 대련의 모더니티에만 주목하여 식민지적 현실을 간과하고 만 기요오카의 대련 인식에 관해서는 이수열(2011) 「지배와 향수 - 근현대일본의 大連 표상」 『日語日文學』 제50집에서 논한 적이 있다.
 - 7) 千田夏光(1980) 『植民地少年ノート』 日中出版 p.170

나의 과거 체험 가운데 지금도 가지처럼 몸에 박혀 있는 것 중의 하나는 오미츠둥(おミツどん)이라는 이름의 일본인 하녀가 테이블 위에서 식사를 하고, 중국인 하녀가 밥공기와 접시를 마룻바닥에 늘어놓고 먹고 있는 광경이다. 그것은 우리 집 부엌에서의 일이었다.⁸⁾

1924년 대련에서 출생한 센다는 “일본인들만 모여 사는 일본인마을(日本人街)에서 성장⁹⁾”했지만 일상생활에서 중국인에 대한 차별이 엄연히 존재했다는 사실을 “전쟁이 끝난 지 34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기회 있을 때마다 회상¹⁰⁾” 하곤 하는 사람이었다. 그러한 만큼 그는 동향의 선배인 기요오카 다카유키의 대련 표상을 “낭만적¹¹⁾”이라고 비판했다. 후일 ‘중군위안부’의 존재를 일본사회에 알린 논픽션 작가 센다 가코의 사상활동의 원형은 식민도시 대련에서의 어릴 적 체험에서 비롯하는 것이었다.¹²⁾

현대일본에서는 대련에 대한 두 가지 이미지, 즉 근대도시와 식민도시의 이미지가 공존하고 있다. 교차하는 대련 이미지는 각각 20세기에 만들어진 식민지도시 대련의 한 단면을 상징하고 있다. 대련은 영국, 러시아, 일본 등 열강의 지배를 차례로 받는 과정 속에서 다양한 민족이 공존하는 동아시아의 대표적 식민지도시로 거듭났다.¹³⁾ 본 논문은 현대일본사회에서 발표된 몇몇 대련 관련 작품을 소재로 하여, 식민지도시 대련이 걸어온 질곡의 근대와 민족 간 접촉과 갈등 속에서 탄생한 새로운 정체성의 가능성에 관해 살펴보고자 한다.¹⁴⁾

8) 千田夏光(1980) 『植民地少年ノート』 日中出版 p.152

9) 千田夏光(1980) 『植民地少年ノート』 日中出版 p.14

10) 千田夏光(1980) 『植民地少年ノート』 日中出版 p.9

11) 千田夏光(1980) 『植民地少年ノート』 日中出版 p.19

12) 센다는 패전 후 마이니치신문 기사를 거쳐 1957년 작가가 되었다. 그 뒤 발표한 千田夏光(1973) 『従軍慰安婦』 双葉社は 일본사회에 전시 성노예의 실태를 고발해 커다란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13) 대련이라는 도시 자체를 대상으로 한 연구로서는 西沢泰彦(1999) 『図説 大連都市物語』 河出書房新社가 포괄적이다. 건축사 연구자인 니시자와 야스히코는 西沢泰彦(2006) 『図説「満州」都市物語』 河出書房新社, 西沢泰彦(2008) 『日本植民地建築論』 名古屋大学出版会 등에서도 대련을 거론하고 있다.

14) 이런 문제관심은 앞서 소개한 川村湊(1990) 『異郷の昭和文学「満州」と近代日本』 岩波新書과 川村湊(1998) 『文学から見る「満州」, 「五族協和」の夢と現実』 吉川弘文館 등에서 많은 시사를 얻었다.

2. 근대도시 대련

1943년 겨울, 이노우에 히사시(井上ひさし)는 대련으로 이사를 간 친구로부터 한 장의 그림엽서를 받았다. 엽서는 화려하고 장엄한 건물이 늘어서 있는 大廣場(오히로바)을 배경으로 한 것이었다. 이후 이노우에 소년은 “꿈의 도시 대련의 숭배자”¹⁵⁾가 되었다고 한다.

지금은 中山광장¹⁶⁾으로 이름이 바뀐 오히로바 주변에는 일본의 통치를 상징하는 건물(은행, 호텔, 관공서)들이 들어서 있었다.¹⁷⁾ 시내 한 가운데에 200미터 크기로 조성된 광장으로부터 방사선 모양으로 10갈래의 길이 뻗어나 갔고, 저녁 무렵이 되면 중앙을 둘러싸고 있는 가스등에 불이 밝혀져 신비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오히로바의 원형이 만들어진 것은 러시아 통치 시대였다. 동아시아에서 부동항과 자유항을 확보하려 했던 러시아는 그때까지 한적한 어촌에 불과했던 靑泥窪(칭니와)에 프랑스 파리를 모델로 한 도시 건설에 착수했다. 오히로바는 러시아가 건설 중이었던 니콜라예프스카야광장¹⁸⁾을 이어받아 완성한 것이었다. 니콜라예프스카야광장을 시작으로 오히로바를 거쳐 오늘날의 中山광장에 이르는 과정은, 대련시의 이름이 달리니¹⁹⁾-다이렌²⁰⁾-다렌으로 변화한 것처럼, 식민도시 대련의 굴곡의 근대사를 상징하고 있다.

러일전쟁 이후 러시아의 권익을 계승한 일본은 대련을 근대적 계획도시로 조성해갔다. 시속 120킬로미터로 질주하는 기차(特急あじあ号), 동양 최대 규모의 병원(大連医院), 일본에서도 볼 수 없는 최신식 시설의 유원지(電気公

15) 井上ひさし(2002) 『井上ひさしの大連 写真と地図で見る満州』小学館 p.4 어린 시절 이러한 경험을 한 이노우에는 “우리들 일본인이 망각해서는 안 되는 과거의 잘못을 계속 기억하기 위해”(p.123) 대련 관련 자료를 수집했다고 밝히고 있다.

16) 새삼 지적할 필요도 없지만 손문(孫文)을 기념한 이름이다.

17) 중산광장을 둘러싼 근대적 식민지 건축물로는 大連ヤマトホテル(현 大連賓館), 横浜正金銀行(현 中國銀行), 朝鮮銀行(현 中國人民銀行), 大連市役所(현 中國工商銀行) 등이 있다.

18) 니콜라예프스카야광장은 파리의 에투알광장(지금의 샤를 드골광장)을 모델로 한 것으로, 그 이름은 당시 러시아 황제 니콜라이 2세와 관련된 것이었다.

19) 러시아는 칭니와를 ‘달리니’라고 불렀는데, 그것은 ‘머나먼’이란 의미였다.

20) 大連의 일본식 발음.

園), 시내 곳곳에 산재하는 공원 시설 등은 대련을 실험적 근대도시로 만들고자 했던 일본통치자들의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동서양이 어우러진 근대적 계획도시, 자유항 특유의 국제적 분위기와 풍부한 물자, 아름다운 자연과 청명한 기후 등은 현대일본의 대련 회상 속에서 흔히 발견할 수 있는 상투적인 묘사들이다. 예를 들어 1916년 일본에서 태어나 대련에서 소녀시절을 보낸 작가 마츠바라 가즈에(松原一枝)는 어린 시절을 회상한 작품 『幻の大連』²¹⁾에서 대련 거리를 아래와 같이 묘사하고 있다.

저녁 무렵이 되면 광장(오히로바 - 인용자)을 둘러싸고 있는 가스등에 청백색 불이 밝혀져 신비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중략) 주택은 돌로 만든 집도 있었지만 주로 기와집이 많았다. 건축 양식은 영국 풍으로 정원이 집 앞쪽에 있는 것이 아니라 뒤편에 있었다. 직, 녹, 청, 회색의 기와로 쌓아올린 지붕은 집집마다 아름답게 색을 발하고 있었다. 도로는 어디나 아스팔트로 포장되어 있었다. 아스팔트 도로를 보수할 때 나는 자극적인 콜타르 냄새를 맡으면 나는 지금도 대련에 대한 향수가 되살아나곤 한다.²²⁾

이같이 아름다운 대련 풍경 속에서는 제국주의 열강의 각축도, 중국 사회의 고뇌도, 일본 지배의 역사도 찾을 수 없다. 오직 어린 시절에 대한 강렬한 향수만이 존재할 뿐이다.

3. 식민도시 대련

근대도시 대련에 대한 그리움과 향수는 패전 이후 일본에서 발표된 대련 회상기의 주선율을 이루고 있다.²³⁾ 하지만 그러한 근대도시의 이면에는 식민

21) 松原一枝(2008) 『幻の大連』新潮新書

22) 松原一枝(2008) 『幻の大連』新潮新書 p.5

23) 대표적인 작품으로 木村遼次(1970) 『ふるさと大連』謙光社, 木村遼次(1972) 『大連物語』謙光社, 時美弘(1978) 『幻影の大連』大湊書房, 井沢宣子(2003) 『麗しき大連』文芸社 등이 있다. 향수 이외에 대련 회상의 또 다른 주제는 인양 혹은 패전 시의 수난에 대한 이야기이다. 그러한 작품들은 본 주제와 직접적인 상관이 없다고 판단하여 대상에서 제외했다.

도시 대련의 현실이 존재하고 있었다. 대련의 아름다운 자연과 국제적 분위기를 사랑한 기요오카도 소학교 6학년 시절 대련의 중국인 거주지 寺兒溝의 “참담한 모습”을 목격하고는 다음과 같은 소감을 밝혔다.

같은 도시 안에 이처럼 우아하고 아름다운 부분과 공포를 불러일으킬 정도로 불결한 부분이 공존하고 있다는 것은 소학교 학생에게는 이상하고 이해할 수 없는 풍경이었지만, 22살이 된 그에게는 더 이상 긍정할 수 없는 사실이었다. 사물에는 아름다운 표면이 있으면 더러운 이면도 존재한다는 것이 인생의 진실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민족의 차이에 대응한다는 사실은 용서할 수 없는 야만적인 일이라고 생각했다.²⁴⁾

그는 근대도시의 이면에 존재하는 식민도시의 모습을 목격하고는 당시 일본의 통치자들이 내걸고 있던 五族協和나 王道樂土라는 슬로건의 기만성을 감지했다. 기요오카는 또 아름다운 고향 대련을 파괴하는 국가의 전쟁을 혐오했다.²⁵⁾

그렇다고 해서 이후 기요오카가 식민도시 대련을 축으로 사고를 영위했다는 말은 아니다. 같은 도시 내부에 존재하는 민족적 차별을 “야만적인 일”로 생각하고 중국인 마을의 공중변소에서 “타도 일본”²⁶⁾이라는 낙서를 보고 충격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기요오카는 그러한 제국주의적 역사의 무대로서의 대련보다는 역사를 초월하는, 역사와는 별개의 아름다운 자연으로서의 대련에 의거하며 작품세계를 전개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은 대련의 특수한 역사의 무대가 되는 것 혹은 그 역사를 초월하는 것으로, 역사와는 별개의 아름다운 자연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의 경우 역사보다도 오히려 이 자연이야말로 몸과 마음에 깊은 영향을 주고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연에 대한 그리움은 이해관계를 넘어 순수한 것에 다다를 수 있다고

24) 清岡卓行(1988) 『アカシヤの大連』 講談社文芸文庫 p.110

25) 학교 수업에서 교련과 검도를 싫어하고 문학과 야구에 심취한 기요오카는 패전을 알리는 8월 15일의 라디오 방송을 듣고서도 “밝은 세계”의 도래를 예감했다고 적고 있다. 清岡卓行(1988) 『アカシヤの大連』 講談社文芸文庫 p.147

26) 清岡卓行(1988) 『アカシヤの大連』 講談社文芸文庫 p.110

생각됩니다. 태어난 고향의 자연에 대한 그리움이 저의 내부에서 사라질 일은 없을 것입니다.²⁷⁾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기요오카는 대련에서 태어나 대련에서 인격을 형성한 사람이었다. 그런 그가 징병검사를 받기 위해 찾은 부모의 고향 고지(高知)를 “자신의 고향이라고 생각하는 실감이 아무리해도 생겨나지 않는다”²⁸⁾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다. 오히려 “이 마을(대련 - 인용자)이야말로 자신의 진정한 고향이라고, 사고를 통해서가 아니라 육체를 통해서 절실히 느꼈다”²⁹⁾는 기요오카의 말은 솔직한 심경의 토로였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련의 중국인들은 일본인에 대해 “차가운 무관심으로”³⁰⁾ 일관했고, 기요오카 또한 그곳이 “조국의 토지의 일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자신의 불행”³¹⁾으로 자각하고 있었다.

센다 가코의 “식민지소년”이라는 자기규정은 기요오카가 지나쳐버린 식민도시로서의 대련에 집착한 결과 도달한 아이덴티티였다. 식민지에서의 성장기를 “인생의 원점”³²⁾으로 설정하는 센다는 더 이상 일본사회에서 자신과 같은 “슬픈 존재”³³⁾가 생겨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중군위안부’, 일본군의 야편정책 등의 문제에 천착해갔다. 그는 전쟁책임을 일부 군인의 문제로 전가하는 일본사회에 대해 아래와 같이 말했다.

‘만주사변’의 죄를 일부 군인이나 음모를 꾸민 관동군 참모들에게 뒤집어 씌워도 되는가 하는 문제이다. 적어도 나의 부친, 그 친구, 옆집 아저씨, 학교 선생들이 ‘드디어 일이 일어났군.’, ‘드디어 해냈군.’ 하며 상기된 얼굴로 9월 19일부터 며칠간을 보낸 것은 사실이다.³⁴⁾

27) 清岡卓行(1988) 『アカシヤの大連』 講談社文芸文庫에 수록된 『著者から読者へ 制作のモチーフ』 p.360

28) 清岡卓行(1988) 『アカシヤの大連』 講談社文芸文庫 p.113

29) 清岡卓行(1988) 『アカシヤの大連』 講談社文芸文庫 p.113

30) 清岡卓行(1987) 『大連港で』 福武書店 p.48

31) 清岡卓行(1987) 『大連港で』 福武書店 p.156

32) 千田夏光(1980) 『植民地少年ノート』 日中出版 p.9

33) 千田夏光(1980) 『植民地少年ノート』 日中出版 p.210

34) 千田夏光(1980) 『植民地少年ノート』 日中出版 p.42

센다가 회고하기에 ‘만주사변’을 계기로 그의 가정은 “갑자기 ‘주머니 사정’이 좋아졌다.” 아버지는 그때까지 다니던 만철(남만주철도주식회사)을 그만두고 토목 관련 사업을 시작했는데, 그것은 개전 후 관동군이 주도한 건설 붐에 편승하기 위해서였다.³⁵⁾ 식민지에서 국가권력과 개인은 별개의 존재가 아니었다.³⁶⁾ 대련의 식민도시로서의 모습은 식민체험과 가해의식을 신체에 박혀 있는 ‘가시’처럼 인식하고 그것을 자신의 문제로 승화했을 때 비로소 보이는 것이었다. 그런 의미에서 역사를 초월한 기요오카와 역사를 직시한 센다가 서로 다른 대련 이야기를 피력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³⁷⁾

4. 다민족사회 대련

센다가 지배자로서의 일본을 통해 대련을 사고했다면 이시자와 에이타로(石沢英太郎)는 다민족사회 대련과 그 속에서의 민족적 정체성의 동요에 주목한 작가였다.³⁸⁾ 이 대련 출생 추리작가는 그 동안 침묵으로 일관하던 자신의 대련 체험을 마치 삶을 정리하듯 발표하고는 세상을 떠났다. 『さらば大連』³⁹⁾이 바로 그것인데, 그 가운데 한 작품인 『競う』은 다음과 같은 문장으로 시작한다.

전쟁이 끝난 후 한동안 만주(동북) 대련에서 소련인과 중국인과 일본인이 공평한

35) 千田夏光(1980) 『植民地少年ノート』 日中出版 p.42

36) 조선 출신 식민 2세 작가 모리사키 가즈에(森崎和江)는 식민지에서 자신들의 “생활 그 자체가 침략이었다.”(森崎和江(1991) 『慶州は母の呼び声』 ちくま文庫 p.45)고 갈파했다. 이 같은 입장은 센다의 그것과 상통하는 것이다.

37) 본 논문에서는 언급하지 못했지만 식민도시 대련을 그린 또 하나의 작품으로서 나가시마 야즈시(中島敦)의 『D市七月叙景(-)』이 있다. 1929년에 발표된 이 작품은 만철 사원 만철 총재, 중국인 쿨리를 축으로 식민지적 불안을 묘사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전계 논문 이수열(2011) 『지배와 향수 - 근현대일본의 大連 표상』 『日語日文學』 제50집에서 논했다.

38) 이시자와 에이타로를 구식민지문학의 일환으로 소개한 연구는 전계 川村湊(1990) 『異郷の昭和文学「満州」と近代日本』 岩波新書이 유일하다. 필자도 가와무라의 연구를 통해 그 존재를 알게 된 점을 밝혀둔다.

39) 石沢英太郎(1988) 『さらば大連』 光文社文庫

조건하에 자국의 긍지를 걸고 기술을 다룬 적이 있다.⁴⁰⁾

이시자와의 대련 관련 작품은 패전 직후의 다민족사회 대련의 혼란상황을 무대로 한 것이 대부분이다. 다민족사회 대련은 열강의 각축 속에서 조형된 식민도시 대련의 또 하나의 모습이기도 했다. 그러나 공존하는 중국인 사회를 하나의 배경적 존재로밖에 인식하지 않았던 식민자들에게 그 모습은 선명히 들어나지 않았던 것 같다. 예를 들어 기요오카는 패전 직후의 혼란 상황을 다음과 같이 회상하고 있다.

그 때 대련은 일본인들에게 여러 민족이 교차하는 어떤 의미에서 로맨틱한 생활의 장이었다. 일본인들은 박해받는 입장에 처한 덕분에 처음으로 타민족의 존재를 확실히 인식하게 되었고 오히려 생각치도 못한 인생의 임시휴가를 맞보게 된 것이다.⁴¹⁾

기요오카가 여기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의도를 분명히 파악할 수는 없지만, 어쨌건 다민족사회 대련이 패전국민으로서의 상실감과 함께 그 모습을 드러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기요오카가 패전 직후의 혼란 상태에서 “로맨틱”한 국제도시 대련을 다시금 상기한 것에 비해 이시자와는 인간과 국가의 관계에 관해 사고했다. 이런 점에서 “인생의 임시휴가”를 사상으로 승화시킨 사람은 기요오카가 아니라 이시자와 쪽이었다.⁴²⁾ 그는 “태어나 자란 곳이 타국이었다는 고향상실감”⁴³⁾에서 오는 정체성의 위기를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나와 같은 식민지의 자식(植民地の子)들에게 일본은 타국이었다. ‘인양’, ‘인양이

40) 石沢英太郎(1988) 『さらば大連』 光文社文庫 p.158

41) 清岡卓行(1988) 『アカシヤの大連』 講談社文芸文庫 p.149

42) 두 사람은 어린 시절 각기 다른 환경 속에서 성장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기요오카가 일본인들이 모여 사는 일본인 거주지에서 자란 것에 비해 이시자와는 “서민동네(下町)에서 중국인 아이들과 함께 어울려 놀면서 자랐다.” 石沢英太郎(1988) 『さらば大連』 光文社文庫 p.232 패전 이후 양자가 서로 다른 대련 인식을 피력한 한 이유로서 이러한 경험의 차이를 들 수 있을 것이다.

43) 石沢英太郎(1988) 『さらば大連』 光文社文庫 p.231

라고 미친 사람처럼 울부짖는 일본인들을 나는 다른 나라 사람 보듯 했다. 나는 중국에 귀화할 것을 심각하게 고민한 적도 있었다. 그런 분열된 민족의식은 일종의 절망감을 야기했다.⁴⁴⁾

이시자와의 작품 속에는 정체성의 혼란에 고민하는 혼혈아, 무국적 러시아인(白系露人)과 같은 디아스포라적 존재들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가 이렇게 경제적 인물에 고집하는 이유는 인간의 귀속의식을 결정하는데 있어 국가를 이차적 혹은 부정적 가치로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国旗』는 패전 직후 통행금지 명령을 어기고 병원에 입원한 중국인 친구 陳鴻仁을 찾아 나서는 일본인 전기 기술자의 이야기를 그린 작품이다. 작가는 시내 곳곳에 설치된 중국 국기와 소련 국기 사이를 헤치고 나아가는 주인공 ‘榎(사카키)’의 심리를 아래와 같이 묘사하고 있다.

국기들은 나의 어리석은 행동을 비웃고 저지하려는 듯 보였다. 나를 이렇게 만든 것은 그것을 넘어 초월하려는 자부와 긍지뿐이었다. 나는 나부끼는 국기들을 무시하며 걸었다.⁴⁵⁾

고향 상실과 정체성의 위기 가운데서 민족과 국가를 넘어 또 다른 공동체를 상상하는 이시자와의 생각은 당시 대동아공영권이 표방하는 민족협화와 미묘하게 교차하고 있었다. 사실 중국의 내셔널리즘과 일본의 내셔널리즘을 동일시하는 이시자와의 시점은 양국의 역사과정을 무시한 하나의 비약이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그가 상상하는 제 민족 공생의 공동체는 적어도 다음과 같은 대동아공영권 구상과는 질적으로 구분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각 민족문화의 특수성을 존중한다고 해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공영권문화라고 하는 하나의 통일된 전체 속에서의 특수성이다. (중략) 따라서 그러한 문화건설의 경우도 자유주의적인 생각에 따라 공연히 자유방임을 허락하는 것이 아니라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공영권문화의 이념을 실현하는 데 제 민족이 협력하도록 지도해야만 한다. 그리하여 공영권문화를 건설함에 있어서도 그 건설 방법으로 지도자 원리

44) 石沢英太郎(1988) 『さらば大連』 光文社文庫 p.232

45) 石沢英太郎(1988) 『さらば大連』 光文社文庫 p.154

를 채용해야만 한다. 즉 대동아 제 민족의 맹주인 일본민족이 스스로 문화건설의 지도자가 되고, 다른 민족은 이 지도자의 지도에 복종하고 주어진 문화건설의 방침에 따라 나아가야 한다.⁴⁶⁾

다민족의 공생과 공영을 표방하는 대동아공영권의 실체는 지도국 일본에 의해 운영되는 식민지 제국에 다름 아니었다. 민족문제에 대한 근대일본의 기본적인 자세는 바로 이러한 이념에 의거하고 있었다.

“일본인이 다민족 국가 안에서 진정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일본 국적에서 이탈해야 한다. 나아가 우월자의 입장을 버리고 국가주권도 포기하고 그들과 함께 살아야한다.”(전계 『国旗』)⁴⁷⁾ 이 같은 숙부의 발언을 매력적으로 느끼고, “선의만 있다면 민족 차별은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시자와의 태도를 현실을 망각한 소박한 사상으로 치부하는 일은 간단하다. 하지만 그것이 패전이라는 객관적 상황 속에서, 다시 말해 지도국의 소멸 위에서 상상된 것이라는 점에서 대동아공영권 구상과는 전혀 다른 사상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5. 결론 - 방법적 존재로서의 식민도시

1924년 조선 경성에서 태어난 식민 3세 출신 시인 무라마츠 다케시(村松武司)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들 가운데는 식민주의자는 있었다. 식민자도 있었다. 그러나 ‘식민지인’만은 출현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일제히 식민지를 버릴 수 있었다고도 말할 수 있다.⁴⁸⁾

고향을 버리고 식민지로 건너간 일본인들에게 그곳은 “암흑이 영광으로

46) 国策研究会(1944) 『大東亜共榮圏文化体制論』. 여기서는 池田浩士편(2007) 『大東亜共榮圏の文化建設』 人文書院 p.310에서 재인용.

47) 石沢英太郎(1988) 『さらば大連』 光文社文庫 p.94

48) 村松武司(1972) 『朝鮮植民者 ある明治人の生涯』 三省堂 p.105

바뀌는’⁴⁹⁾ 재생의 터였다. 그런 만큼 식민지는 정주의 땅이 아니라 일확천금이나 신분적 비약을 노리는 기회의 땅에 지나지 않았다. 가와무라 미나토는 이렇게 말한다.

민족의식이나 국가의식에 있어서 만주의 일본인들은 섬나라의 단일민족국가관을 그대로 가져들어갔고, 복합민족국가라는 현실이 단일민족국가관이라는 이데올로기를 어떤 의미에서도 분해하는 일은 발생하지 않았다.⁵⁰⁾

다민족사회 ‘만주’가 근대일본의 국가관을 시정하는 일은 발생하지 않았다는 가와무라의 지적은 그대로 전후일본에게도 해당하는 말이다. 패전국 일본의 탈제국화 과정은 연합국 주도하에 수동적으로 진행되었고, 그 과정에서 식민지의 문제, 즉 민족의 문제가 사상적 과제로 등장하는 일은 일부를 제외하고 끝내 없었다. 물론 재일조선인이나 오키나와와 같은 내국식민지적 존재는 있었지만 식민지와 민족의 문제는 제국주의의 기억과 함께 급속하게 풍화되어갔다. 이 같은 상황은 대련 표상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였다. 1970년 전후에 등장하는 식민2세들에 의한 회상기도 어린 시절에 대한 아련한 향수와 고향에 대한 노스텔지어가 주선율을 이루고 있을 뿐 중국인과 그 사회는 배경적 존재로 그려지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이런 점에서 다민족사회 대련에서 또 하나의 새로운 정체성이 탄생할 가능성에 관해 언급한 이시자와는 이색의 사상가였다고 할 수 있다. 대련에서 白系露人は “조국을 갖지 못한 流民”(전개『競う』)⁵¹⁾으로서 경멸의 대상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소설 속의 일본인 주인공은 “국적? 국적 따위는 내게 필요 없어”⁵²⁾라고 말하는 ‘료리아(リョーリア)’에게 “절망감이나 허무감이 보이지 않는 점을 이상하게”⁵³⁾ 생각했다. 료리아의 입장은 다음과 같은 것이었다.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국가가 없었어. 그래서 국가를 생각하지 않고 뭐든 선택할

49) 村松武司(1972) 『朝鮮植民者 ある明治人の生涯』三省堂 p.102

50) 川村湊(1990) 『異郷の昭和文学 『満州』と近代日本』岩波新書 p.175

51) 石沢英太郎(1988) 『さらば大連』光文社文庫 p.160

52) 石沢英太郎(1988) 『さらば大連』光文社文庫 p.162

53) 石沢英太郎(1988) 『さらば大連』光文社文庫 p.163

수 있어. 지금은 이런 입장을 기쁘게 생각하고 있어. 나는 국가를 생각하지 않고 인간을 사랑할 수 있고, 국가를 생각하지 않고 사람을 위해 죽을 수도 있어.⁵⁴⁾

이 백계 러시아인이 대련에 전력을 송출하기 위해 노력하다 죽음을 맞이하고 일본인 주인공이 그 죽음의 의미를 되새기는 것으로 소설은 끝나고 있다.

이상한 가정이지만 만약 일본의 식민지배가 계속되었다면 무라마츠가 말하는 ‘식민지인’이라는 새로운 정체성이 탄생했을지도 모른다. “일본인들보다 중국인들에게 더 친근감”을 갖고 “일본인보다 중국인 친구가”⁵⁵⁾ 많았던 이시자와와 같은 경계적인 인물들이 비록 소수이긴 하지만 탄생할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했기 때문이다.⁵⁶⁾

다민족사회 대련은 제국주의의 역사가 낳은 식민도시 대련의 또 다른 모습이었다. 정치적 혼란 속에서 생겨난 디아스포라적 경제인들은 역사가 낳은 비극적 존재임에 틀림없지만, 동시에 그들은 역설적이게도 민족적 출자와 정치적 아이덴티티의 동일을 당연시하는 민족국가의 논리를 상대화하는 존재이기도 했다. 이런 의미에서 20세기에 만들어진 식민도시 대련은 근대 이후를 상상하는 방법적 존재로서의 의의를 내포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参考文献〉

- 芦谷信和・上田博・木村一信編(1992) 『作家のアジア体験』世界思想社 pp.45-66
 池田浩士編(2007) 『大東亜共栄圏の文化建設』人文書院 pp.293-348
 石沢英太郎(1988) 『さらば大連』光文社文庫 pp.81-217
 井上ひさし(2002) 『井上ひさしの大連 写真と地図で見る満州』小学館 pp.4-65
 川村湊(1990) 『異郷の昭和文学』岩波新書 pp.61-98
 _____(1998) 『文学から見る『満州』』吉川弘文館 pp.45-97
 清岡卓行(1987) 『大連港で』福武書店 pp.48-156

54) 石沢英太郎(1988) 『さらば大連』光文社文庫 pp.213-214

55) 石沢英太郎(1988) 『さらば大連』光文社文庫 p.242

56) 무라마츠 다케시는 전계 村松武司(1972) 『朝鮮植民者 ある明治人の生涯』三省堂에서 자신을 “반(半)일본인·반(半)조선인”(p.12)으로 규정했다. 이러한 점은 중국으로의 ‘귀화’를 고려하고 어릴 적 중국인 친구들을 “내 몸의 일부”(石沢英太郎(1988) 『さらば大連』光文社文庫 p.232)로 생각하는 이시자와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다. 이시자와는 “반일본인·반중국인”이었던 셈이다.

- _____ (1988) 『アカシヤの大連』講談社文芸文庫 pp.71-360
_____ (2007) 『偶然のめぐみ』日本経済新聞出版社 p.24
千田夏光(1980) 『植民地少年ノート』日中出版 pp.7-214
中島敦(1993) 『中島敦全集1』ちくま文庫 pp.343-373
西澤泰彦(1999) 『図説 大連都市物語』河出書房新社 pp.7-35
_____ (2006) 『図説 『満洲』都市物語』河出書房新社 pp.14-78
松原一枝(2008) 『幻の大連』新潮新書 p.5
村松武司(1972) 『朝鮮植民者』三省堂 pp.12-105
森崎和江(1991) 『慶州は母の呼び声』ちくま文庫 pp.17-219

접 수 일: 12월 30일
심사완료: 1월 25일
게재결정: 1월 28일

<Abstract>

The Representation of Dalian in Modern Japan
: A colonial city as a method

In modern Japan, two different images about Dalian are co-existing: a modern city and a colonial city. Those images of Dalian represent an aspect of Dalian as a colonial seaport town built in the 20th century. Dalian has been under the domination of Great powers including England, Russia and Japan, one after another, and in the process, it became a representative colonial seaport town in East Asia where different ethnic groups co-existed. Firstly, I will look at Dalian's modern history. This can be said to be the history of ordeal in a sense that the city of Dalian has passed through the contacts and conflicts with different ethnic groups. And secondly, I will look at a possibility of a new identity which was born in the midst of the history.

Multi-cultural society of Dalian was another feature of colonial city of Dalian resulting from the history of Imperialism. Diaspora people or marginal men, who were created in the midst of political chaos, were definitely the tragic existence as well as the victim of history. At the same time, they relativized the logic of a nation-state that regards the equation of the ethnic origin with political identity as natural. In this sense, Dalian, a colonial seaport city built in 20th century, has a significance as a method to imagine the post-modern times.